

“쌓여가는 배달 플라스틱 용기 보고 창업 ‘용기’ 냈죠”

3040 벤처 CEO 열전

다회용기 대여 ‘잇그린’ 이준형 대표

친환경·위생·간편 多 잡은 ‘다회용기’ 탄소저감도 ‘한발짝’



이준형 잇그린 대표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이 일상이 된 가운데, 플라스틱 일회용기가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비자들에게 죄책감을 안겼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강화된 정책의 배경이 됐다.

소셜벤처스타트업 ‘잇그린’은 다회용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간편한 이용으로 설거지, 분리배출, 잔반처리 등 번거로운 일을 대신 해주는 ‘리턴잇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준형 잇그린 대표는 지난 10년동안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해외에서 추진해왔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재택근무를 하면서 배달로 생긴 쓰레기가 아파트 놀이터까지 쌓이는 것을 보고 2021년 다회용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이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폐기물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애초에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잇그린’을 창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턴잇 서비스’는 현재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특급’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기요·배달특급서 ‘리턴잇 서비스’ 식사 후 뚜껑만 닫아 문 앞에 두면 회수해 세척하고 살균·소독까지

배달시 다회용기 선택을 누르면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게 친환경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배달된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 없이 뚜껑만 닫아 문앞에 반납하면 업체가 용기를 회수해가며 자체 개발한 세척 시스템으로 살균 소독한다. 향후 ‘배달의 민족’ ‘쿠방이츠’ 등 다양한 배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다.

‘리턴잇 서비스’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직장인, 1인 가구가 주로 이용한다. 처음에는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 사용했다가 음식물 처리나 분리수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한번 이용한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용한다고.

제휴를 맺은 식당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요기요’에서 강남구, 서초구 지역에 ‘리턴잇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식당 제휴처는 30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150곳으로 늘었다.

오는 29일부터는 ‘배달의 민족’, ‘쿠방이츠’, ‘뽕겨요’ 3사에서도 ‘리턴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안으로 강남, 서초를 포함한 관악구, 광진구, 서대문구



리턴잇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회용기가 아닌 친환경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배달된다. 먹고 난 후에는 뚜껑만 닫아 문앞에 내놓으면 업체가 회수해간다. /잇그린

까지 총 5개 구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약 800곳의 식당에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표도 시행착오를 겪었다. “첫 번째는 다회용기 리턴 서비스를 ‘딜리버리’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였기 때문에 국내외에 벤치마킹할 회사가 없었고, 서비스 개발과정을 온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내야 했다는 점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였다”며 “지금은 많은 분이 환경에 도움이 되고 뒷처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 때문에 ‘리턴잇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초반에는 어떤 점을 내세워야 한 번에 인식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비스 재이용률은 80%에 달한다. 이 대표는 “다회용기 재사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식사 후에 음식을 남겨도, 그대로 뚜껑만 닫아서 문앞에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시스템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음식물을 따로 치우지 않고, 그릇을 씻지 않고, 분리수거 할 쓰레기도 없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회용기로 배달 온 것보다 훨씬 편리한 경험으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기 세척은 역삼동 세척허브에서 이뤄진다. 회수된 용기는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등을 포함한 7단계의 세척 공정으로 관리된다. 공장에서 세척없이 생산 후 바로 납품되는 일회용기보다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까지 전문 세척 과정을 거쳐 매일 전수검사 후 출고되는 리턴잇

리턴잇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회용기가 아닌 친환경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배달된다.



다회용기가 더 안전하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잇그린’은 현재 배달 앱 상에서의 다회용기 서비스에서 야구장 다회용기 서비스, 기업 점심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대~40대, 1인 가구서 인기 재이용률 80%… 만족도 높아 배달앱 제휴처·식당 확대 박차 “향후 탄소배출권 사업도 계획”

단순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 과정의 탄소 배출, 일회용 용기 사용대비 탄소 저감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탄소 저감을 통해 추후 탄소배출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리턴잇 서비스’를 좀 더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인재를 지속해서 채용, 환경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신나고 즐겁게 일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식량보호주의 확산… 공급 줄면 개별 국가 GDP 0.1% ↓”

(최대)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경제 리스크 작용 우려 저소득국 피해… 양극화 심화

세계 식량가격이 향후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팬데믹과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지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식량보호주의

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리스크 요인’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가격 급등은 주변 국가의 식량 수출제한조치를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식량보호주의의 확산은 국제 식량가격을 재차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식량산업은 기후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무역거래의 비중이 낮다. 또 일부 국가 및 곡물 메이저들의 과점 구조가 고착돼 있어 공급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국가 간

공조체제가 작동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경제의 지경학적 분열(geo-economic fragmentation) 움직임은 식량자원 수산화 가속화에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이상기후 증가 추세와 함께 향후 식량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식량가격간의 내생성을 감안해 실증분석한 결과 밀의 경우 전체교역량 중 수출제한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때마다 가격은 2.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산업연관분석(ADBMRIO) 결과 식량보호주의로 인한 공급제한은 개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 감소했다. 식량 지출 비중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최근의 식량가격상승은 가계실질 소득을 국가별로 0.2~5.8% 하락시켜 글로벌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분석이다.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직접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국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

른 정치·경제 불안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특히 팬데믹과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은 금융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장병훈 한은 조사국 과장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 국가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생산을 늘려나가는 등 기존 식량산업의 제약조건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